

모든 성인의 날 (성삼 후 2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선창: 김니콜라 반주: 정모니카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 산본교회](http://www.youtube.com/성공회 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 269장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6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6쪽 .....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성인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비오니, 우리도 앞서간 모든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주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고, 마지막 날에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1독서 ..... 이사 25:6-9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24편 ..... 다 함 께



- 1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  
 ○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주님의-| 것
- 2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 이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 3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리랴?  
 ○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 4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이-|다.
- 5 이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고  
 ○ 하느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다.
- 6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며  
 ○ 야곱의 하느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 묵시 21:1-6상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복음서 ..... 요한 11:32-44 ..... 말 은 이

설교 .....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22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656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3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102쪽(C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8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9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624장 .....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 41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42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654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1월 3일)	다음 주일(11월 10일)
1독서	윤희진	백남진
2독서	유정훈	박선희
대 도	정연창	최용욱
다음주일 전례독서	신명 8:1-10   시편 65 야고 1:17-18, 21-27   마태 6:25-33	
성 가	530   341   성가대 특송   342	
복 사	최하현	보혈조력 정국진
다음주간 교회청소	<6조> 최용욱 윤희진 허예영 동소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11월 3일 모든 성인의 날(성삼 후 23주일)·나해·백색

제28-44호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 성인(聖人) 되어



'성인'(saint)은 누구입니까?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로와 여러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성도'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이런 점에서 모두 성도입니다.

바울로의 선교 이후에 교회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하고 분명하게 봉헌된 삶을 살며 그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이 그러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오롯이 드러내는 이들의 삶의 증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급격한 확장을 경험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완전히 잠긴 이들의 삶과 죽음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성인'으로 불리운 이들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마음의 밝은 눈"으로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알게 하여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으며, 그래서 마침내 인간이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성인들은 지상의 삶을 살되 하느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살았으므로, '걱정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인들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생동하며 살았으므로 걱정 에 지배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넘어서 하느님의 눈길로 보는 이, 하느님의 손길을 돕는 이, 하느님의 발길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인이 되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11월 10일(주일)

모든 교우의 날 · 추수감사주일

\* 모든 교우의 날 (교회축성기념일, 교회설립기념일)

1997년 9월 21일, 정기적인 전례가 시작한 날을 산본교회 설립일로 삼아 이제 27주년을 기념합니다. 더불어 2012년 11월 18일은 이곳 성전을 축성한 날로 기억하며 12주년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교우들의 마주치는 눈에서 기쁨이 되고, 잇닿은 가슴에서 사랑이 되며, 맞잡은 손에서 친교와 봉사의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벗들 모두를 초대하여, 가족 총동원주일로 기쁘게 모입니다.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루와 한해와 일생의 삶이 모두 "눈물로 씨 뿌리고, 힘써 일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의 과정입니다. 목적을 깨닫고 도전하며, 과정을 성실히 인내하고, 결실을 감사하며 나누는 일이 신앙의 삶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봉헌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립니다.

위령과 위로의 달 11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11월은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과 모든 별세자의 날(11월 2일)로 시작하여, 한 달 전체를 위령의 달로 지키곤 합니다. 우리 신앙 전통을 회복하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과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 교우와 가족을 하느님 품 안에 모셔 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크고, 지상에서 함께했던 이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마음은 여전히 황망합니다. 오래 전에 떠나 보냈다 하더라도, 그 아픔과 그리움은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때까지 가슴 한가운데 응어리로 남습니다. 신앙인은 사랑과 그리움의 기억이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상통 신학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사회적 참사와 희생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벌써 2년이 넘도록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폭우 대처 미비로 생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군복무 중에 잃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1년 전 일이고, 화성배터리 공장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여전히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쓰러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을 위령의 달로 지키며, 지난 세월 동안 하느님께로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마음 깊이 새겨 주십시오. 여전히 사회적 참사와 산업 재해로 희생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하고 상실의 아픔을 사랑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남아 있는 이들의 위로와 기도가 하늘에 닿고,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3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루가복음 1장 37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모든 성인의 날

오늘(11월 3일)은 모든 성인의 날 축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삶을 봉헌한 성인들을 되새기고, 세례명을 가진 모든 이를 축복합니다.

■ 알림

◆ 모든 교우의 날(축성/설립기념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0일(다음 주일) 오전 11시 교회설립 27주년, 교회 축성 12주년을 기념하며 가족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모두 초대해 주세요.

◆ 교회위원회 워크숍

오늘(11월 3일) 오후 1시 40분 교회 선교를 위한 워크숍에 모든 교회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위원회 포함)

◆ 전교우 성서공부

오늘(11월 3일) 애찬 후 1시 5분에 있습니다.

◆ 수요 성서공부

11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학생회, 청년회, 아버지회 풋살 경기

11월 10일(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 / 대야미구장

◆ 신자 사역자 모임

11월 12일(화) 오후 6시에 모입니다.

◆ 베드로 아버지회 주관 가을 산행(예정)

11월 24일(주일) 애찬 후에 산행을 합니다.

◆ 남부교무구 용인교회 교육관 및 사제관 축복식

오늘(11월 3일) 오후 3시,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어머니 월례모임

11월 14일(목) 오전 11시 / 안중교회

◆ 서울교구의회

11월 23일(토) 오전 10시 / 성공회대학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길자(4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3,760,000원  
김동준/이선자 김은하 김준우/조장은 이은경 임광호/최속진 정국진/이숙영 정연창/박순호 조준행신부 최용준신부/백기은

■ 주일헌금 220,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선희 박종래 백옥경 유군상 이동우 이서현 이원주 이은경 조준행신부 최순덕 황선숙

■ 주일헌금 유아윤 유아현 2,000원

■ 감사헌금 500,000원  
기필순(건강) 김대식 김도한(생활) 백옥경(건강) 윤희진 이은경(건강) 정연창/박순호(가옥축복) 조성산/이승현 최미혜(일상)

■ 특별헌금 190,000원  
백옥경(나눔의집) 최하현(인천나눔의집) 기필순, 이은경, 정연창/박순호, 조준행신부(아론) 김운권(케냐성공회 린다 아위노 오키노 긴급후원)

◆ 주간전례독서 (11월 4일~9일 / 연중 31주간)

	독서	복음
4일(월)	필립 2:1-4	루가 14:12-14
5일(화)	필립 2:5-11	루가 14:12-14
6일(수)	필립 2:12-18	루가 14:25-33
7일(목)	필립 3:3-9	루가 15:1-10
8일(금)	필립 3:17-4:1	루가 16:1-8
9일(토)	필립 4:10-19	루가 16:9-15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주일을 잘 지키는 신앙공동체 (예배하는 사람)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새교우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며

◆ 고3 수험생을 위하여 이동우 미카엘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래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방유미 이은가